

아버지 술잔의 절반은 눈물

이영숙/ 한국디아코니아지매회 언넴. 한살의 집 봉사자

이글은 10년이상 결핵환자들을 돌보며 지금도 함께 지내오는 이영숙 언넴의 보고 느낀 육필수기이다.

결핵병으로 인해 형제와 이웃,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야만 했던 그들의 삶의 질곡에서 재생의 삶을 갖게하기 위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올한올 엮어 본지에 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부웅, 뱃고동이 울리자 내가 탄 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햇빛이 파스히 내리쬐는 오후 한나절의 목포앞 바다 위로 흰 갈매기가 평화롭게 날고, 금빛 물결이 뱃전에 부딪쳐 희게 부서진다.

오랫만에 짜여진 일과 속에서 빠져나와 홀가분하게 배를 타고 가는 이기분, 너무나 상쾌하여 날을 것만 같다. 바다 한 가운데 쬐에서 바라다보이는 목포의 뒷모습은 왠지 초라하기만 하다. 세계의 섬중에서 이미 두개가 없어진 삼학도에 서는 시멘트 공장의 굴뚝만이 유난히 높이 솟아나 있고, 어느 도시에나 후미진 곳이 있듯이 유달산 기슭 아래로 스텝으로 엮여지은 작은 성냥곽 같은 집들이 셀 수 없이 밀집되어 골짜기를 메우고 있다. 그러나 정겹기만 하다. 이곳에서 요양중 이던 아빠를 대신해서 일곱식구의 생계

를 위해 나이를 속여가며 14살때부터 공장에 다녔던 현정이네 집이 그곳에 있고, 항상 얼굴이 창백하던 정희네집도, 말투가 통명스러워서 별명을 붙여준 '쪽보'아저씨네 집도 모두 그곳에 있기 때문일까? 나도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고, 지금의 내가 이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가난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을 가슴에 담아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살았던 때 문일까?

목포시에는 아직 결핵환자가 많은 편이다. 지난해 병원에 등록된 570명의 결핵환자중 목포에서만 215명의 환자가 있음이 밝혀졌었다. 우리 환자들 대부분은 어업이나 농업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소수의 잠상인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은 편이다. 시구역 안에서도 몇개의 섬이 있고, 인근섬은 말할 수 없이 많다. 오늘



내가 방문하려고 하는 환자도 목포에서 멀지않은 작은 섬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곳 요양소에서 치료하던 중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던 환자중의 하나였다. 그는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으로서 증세도 심한편이었고, 얼굴 또한 어려서 친연두의 앓은 흔적으로 곱지 못했다. 그는 배우지도 못하였고, 거동이 불편하여 그의 부인이 작은 점포를 운영하여 시어머니까지 다섯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 요양소에 입원한 얼마후에 그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 늦은 밤 외출을 하고 있으며, 낮에는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양소는 야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산 허리에 나있는 샛길을 그몸으로 오르내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고속도로 변을 통하여 뒷마을 주점까지 가야만 했

는데, 그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위험천만의 모험이었다.

그가 촌안에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근심이 되었다. 늦은밤 몰래 술을 마시고 재넘어 요양원까지 서툰걸음으로 걸어오고 나면 찬새벽에 당도하기도 했다. 어쩌다 새벽녘에 일이 있어 요양소를 오가다 내가 먼저 그를 알아차릴때면 사실 미움보다는 안도감이 앞서기도 했다. 나의 인기척을 듣고도 빨리 피하지 못하는 그를 내쪽에서 먼저 피해주고 오던 길을 되돌아 가던 그런때도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30~40명의 남녀 환자를 혼자 감당하던 때였으므로 질서를 앞세우면 그는 퇴촌의 대상이 되고도 남았다.

그러나 규칙과 질서가 그렇더라도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기다려 줄때 사람은 회복되 가는 것을 나는 체험해 왔었다. 내가 그 새벽에 그를 모르는



“

내가 그 새벽에 그를 모르는 체 하는 것은 그에게 치료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부인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지만 나의 최선의 방법이었다.

”

체 하는 것은 그에게 치료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부인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지만 나의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런 애씀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요양한지 3개월만에 더이상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그는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참 애석한 일이었다. 사실은 그가 견디고 일어서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한 책임을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간호사나 의사의 사무적이고 냉철한

행동과 언어가 약한 환자를 더 약하게 하고 상하게 하며 심지어는 살아 보려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예들을 들어 오지 않았던가? 내가 그를 생각할때마다 동시에 나를 찌르는 “포기 했어요”라는 그의 소리를 들으며 괴로워 한 적이 있었다.

포기란 죽음과 같은 것, 자기 스스로 건 상대에 의해서건 이런 포기를 당하는 것은 다른 하나를 얻기위한 선택이 아닌 이상은 죽음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닌가?

어느덧 배가 섬에 도착 하였다. 그의 집에는 착하기만 했던 그의 아내가 더이상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집을 나가 버리자 그의 노모님이 점포와 살림을 혼자 꾸려 가고 있었다. 처마가 낮은 작은 뒷방으로 나를 안내하며 그녀는 그간의 이야기를 주섬 주섬 들려 주셨다.

“며느리가 집 나간지 1년만에 큰딸 아이를 데려가 버렸소, 그런데 막내녀석도 방학이라서 지에미 있는 곳으로 간지 2주 동안을 저리 술만먹고 누웠으니… 이젠 정말 죽을 것 같소” 조용히 들어선 작은 방에는 어울리지 않을만큼 커다란 텔레비전이 있었고, 그는 온정신을 쏟아 권투 중계를 보는 것 같았다. 자신의 열등과 불만들을 상대의 ‘레프트후크’에 한방 먹일듯이… 드디어 한 선수가 상대편의 주먹에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에비아’ 부르는 노모의 음성에서 겨우 돌아눕는 일년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사람풀이 아니었다. 상대의 레프트후크를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KO를 당한 패자 같았다.

이럴수가… 그는 세상의 고통을 혼자 지고 살아가는 사람같아 보였다.



“

며느리가 집 나간지 1년만에
큰딸 아이를 데려가 버렸소.
막내녀석도 방학이라서 지에미
있는 곳으로 간지 2주동안을
저리 술만먹고 누웠으니...

”

그가 내민 작은손을 마주 잡으며,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인사란 “미안해요”라는 말밖에 없었다. 그가 웃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얼굴은 이상한 모양으로 일그러져 갔다. 흩어진 약병이며 아무렇게나 내던진 휴지들을 주워 담으며 건강에 대해 물었다. 그는 지금 감기에 걸렸노라고 말했지만 내가 본 그는 병색이 완연했다. 나는 목적했던대로 그와의 끈질긴 실갱이 끝에 진찰을 받겠다는 허락을 받아 내었다. 그러나 목포에까지 나와서 엑스

레이사진을 찍는다는 일이 쉬운일이 아닐 것 같았다. 점포를 하루쯤 쉬는 일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의 거동을 도울 사람은 그의 노모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나는 마지막 배를 타야만 했기 때문에 일어서야 했다. 그와 병원에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고 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문설주 위에 그가 볼펜으로 썼음직한 작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아버지 술잔의 절반은 눈물이다” 웬지 코끝이 찡해진다. 그때 “아빠”를 부르며 급히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아이가 후다닥 방안으로 뛰어든다. 막내 아들이었다. 두 부자가 한참 동안이나 울먹이며 영켜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서둘러 선착장으로 향했다. 내가 타자마자 배는 떠나기 시작했고 서쪽으로 지는 해는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